

### 가끔은 나 자신에게도 박수를 보내자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는 당신에게



내 삶이 보물이 되는 순간

배연국 지음, 글로세움, 1만9000원

행복은 발견이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찾아내느냐에 달렸다. 보물을 찾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보물일 것이다.

저자 배연국은 지난 10년 동안 주변에서 발견한 일상의 기쁨들을 행복 편지로 써서 SNS에 실어 보냈다. 책에 실린 글은 3000여 개의 편지 중에서 엄선해 99개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한다. 영겁의 세월과 역겹의 인연 없이는 지구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적은 몸속에서도 일어난다. 심장은 몸속 곳곳에 피를 보내기 위해 매일 10만 번 박동한다. 한 사람의 심장이 활동하는 에너지를 평생 흡산하면 70kg짜리 바위를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500년 끌어올릴 힘이라고 한다. 살인(殺人)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人)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人生)을 죽이는 것이다.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은 인생을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형벌로 얽히지 않지만, 자기 인생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짝이 없다.

절해고도의 독방에 갇힌 뺨뺨용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어느 날 꿈속에서 신이 그에게 매서운 죽비를 내리친다. “나는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한 최악의 범죄로 갇힌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든 뺨뺨용은 새 삶을 살기 위해 탈옥을 결심한다.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무거운 죄! 만약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명백한 유죄이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온 이들은 행복했을까

해방 조선·사할린 한인 등 숨겨진 이야기



다시 조선으로

이연식 지음, 역사비평사, 1만9800원

신간 '다시 조선으로'는 조선에서 해외로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살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은이 이연식은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30여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광복 후 조선의 민낯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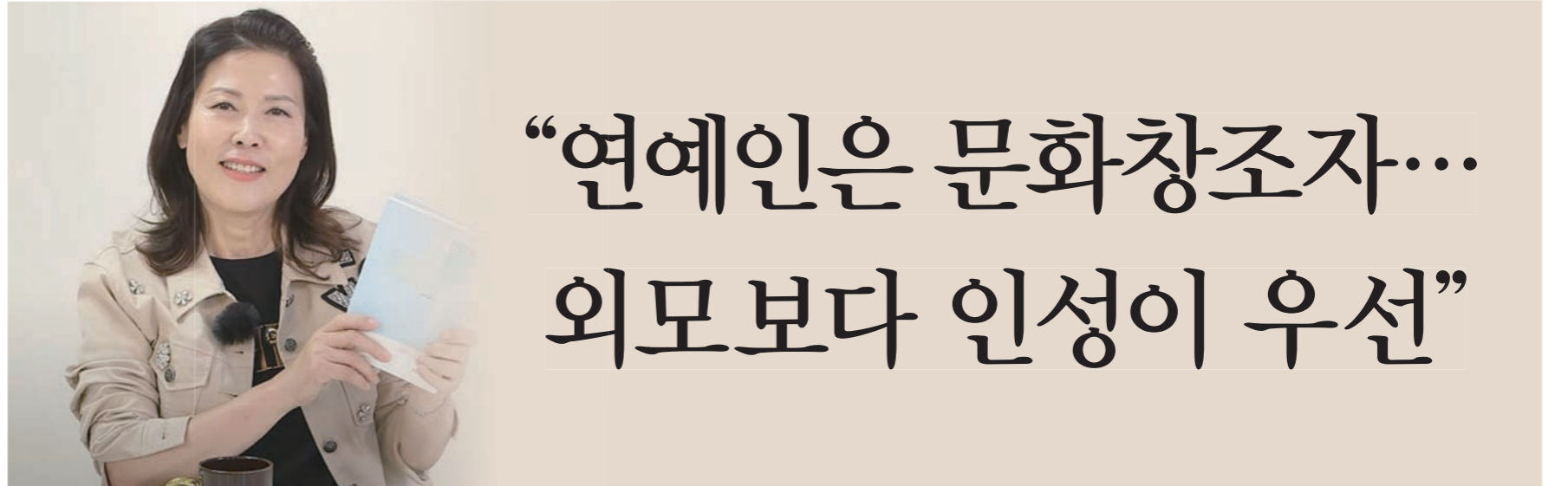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혹은 이주 그 자체를 뜻한다. 디아스포라가 타국살이라면 이 책은 타국살이를 끝내고 본토로 돌아온 자들의 행로 즉 역사 디아스포라를 추적한다.

광복 직후 남한 인구는 1600만 명이었다. 1-2년 만에 100만여 명의 일본인이 돌아가고 250만여 명의 귀환자와 초기 월남인이 유입되었다. 고생 끝에 고국에 돌아왔으나 공동체로서의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남한은 지독한 사회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먹고살기 위해 사창가로 모여든 여성들과 주린 배를 채우고자 식량 창고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옷차림과 말투가 달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어린이들... 노점상을 시작했지만 기존 상인의 텃세와 폭력배의 갈취로 맘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또 얼마더냐.

끝도 없이 밀려드는 유입자 때문에 고통당하기는 거주민(既住民·host society)도 마찬가지였다. 주택난·식량난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인정도 종이처럼 파삭하게 말라 버렸다.

또한 책은 일본인 재산의 선부른 처리로 각종 편법을 동원한 투기와 사재기가 횡행하고 그 속에서 사복만 채우려 들었던 당대의 사회적 병리 현상을 소상히 소개한다. 이 책은 기획의 참신함으로 '2024년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에 뽑혔다. 임유이 기자lye@skyedaily.com



## “연예인은 문화창조자... 외모보다 인성이 우선”

방송국 PD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인생의 해답을 만나고 과정을 판타지적 기법으로 그려낸 장편 소설 '이상한 알베르케'(12권, 더소울)를 펴낸 신경애 작가가 이번엔 아예 '연예인'(AasB-에이엔즈비)을 제목으로 예술실용서를 출판했다.

신 작가가 강소영·강진영·강진효 등은 하·박다예지·윤형정·이지은과 함께 집필한 '연예인'은 부모의 마음으로 연예계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와 연예계가 맞닥뜨린 여러 고민을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상한 알베르케'가 소설 형식인 반면 '연예인'은 연예인 지망생을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교과서이자 지침서다.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과서가 없는 현실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연예인은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이 겪는 다양한 이슈들은 대중의 주목만으로는 진정한 성공과 존경을 얻을 수 없음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다.

책은 연예인의 성공이 인기가 외모가 아닌 성숙한 인성과 책임감,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원팀' 정신에 달려있음을 강조

#### “연예인” 출간 신경애 작가

“인기는 한순간, 인성은 영원” 진정한 스타 되는 비결 소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연예인” 스승 천공의 가르침 되새겨

한다. 신 작가는 책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필요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 '연예인'은 연예인을 꿈꾸는 이들 뿐 아니라, 현재의 문화예술계와 사회 전반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새로운 시대의 선투선을 고민하는 모두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연예인'은 또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대중의 사랑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을까' 같은 모두가 고민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은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예인'은 인생의 여러 의문에 답을 찾아 주는 '이상한 알베르케'의 연예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연예인'은 연예인이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니라 시대의 리더이자 문화창조자로서



연예인 신경애 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신 작가는 정범시대문화재단 이사장답게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진정한 스타가 되는 비결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물론 그게 끝이 아니다.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게 현실인 연예계에서 워킹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방법이 궁금하면 책이 해답을 줄 것이다. 특별 Q&A 섹션에서는 △돈 관리 △악플 대처 △기부 등 연예인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각종 문제들을 속속 파헤쳐 준다.

신 작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연예인이다”는 스승 천공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의 연예인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

르는 가수나 배우 탤런트만을 일컫는 말은 아니다.

신 작가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각자가 필요한 책,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책을 시작으로 더 발전적인 책이 나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신 작가는 이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흥익인간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연예인 품성을 갖추어야 하며, 내가 속한 분야에서 그들의 워너비가 되어야 한다”며 “그랬을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단체를 변화시켜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류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작가는 또한 “책을 읽어보고 피드백을 남겨 더 좋은 책을 만들게 하며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이 책을 쓴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썼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만든 책이 아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말했다.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1급 설계원·보위부 비밀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북조선 인텔리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목숨 건 탈북 여정! 세 번 탈북, 세 번 체포... 中연길 감옥, 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이다”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채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핵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대표)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닦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한원채 지음 · 행복에너지 15,000원

